

고정밀 지도 데이터 조건부 반출 허가를 통한 공간정보 규제 완화 및 보안통제 병행

해당국가	한국	기관(기업)	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시·공간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-

- 정부는 2026년 2월 구글의 1:5,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신청을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하며, 장기간 유지돼 온 공간정보 반출 규제를 조건부 완화하는 정책 결정 추진
 - 이번 결정은 군사·보안시설 노출 우려를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의 국내 지도 서비스 이용 편의와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한 조치
 - 정부는 2007년과 2016년 구글의 반출 요청을 안보 우려로 불허했으나, 이번에는 보완신청서와 보안조치를 전제로 조건부 허가 결정
 - 이에 따라 한국은 그동안 기능 제약이 있던 글로벌 지도 서비스의 국내 활용 여건이 일부 개선될 가능성 형성
 - 관계부처 협의체는 데이터 반출 허용과 함께 안보 리스크 통제를 위한 구체적 이행 조건을 부과하는 관리형 승인 구조 마련
 - 영상 보안처리, 좌표표시 제한, 국내 서버 활용, 사후 수정, 보안사고 대응, 조건 이행 관리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
 - 군사·보안시설의 추가·변경 시 즉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건의 지속적 미이행이나 중대한 위반 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통제 장치 병행
- 이번 반출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 활용성 개선에는 기여 가능하나 미래 모빌리티 핵심 인프라로의 직접적 연결은 제한적인 수준
 - 반출 범위는 내비게이션·길찾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정보로 한정되며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자료는 제외되는 구조
 -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경우에만 데이터 반출 허용
 - 글로벌 지도 서비스 품질 개선과 시장 경쟁구도 변화 가능성은 존재하나 자율주행 상용화 등으로의 확대 해석에는 신중한 접근 필요
 -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내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도 병행 권고하며 개방과 산업경쟁력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방향 제시
 - 협의체는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, 공간 AI 기술개발, 전문인력 양성, 공공수요 창출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 수립을 정부에 권고
 - 동시에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 및 AI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방안 강구를 권고해 개방과 산업 보호 병행 정책 기조 확인

※ 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2026.02.27), 구글 1:5000 지도 국외 반출 허가…군사시설 가림 등 조건부 승인
Reuters(2026.02.27), South Korea set to finally get a fully functioning Google Maps